

# 법정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보편성의 언어와 의사(擬似) 교육적 효과



글\_ 유성호문학평론가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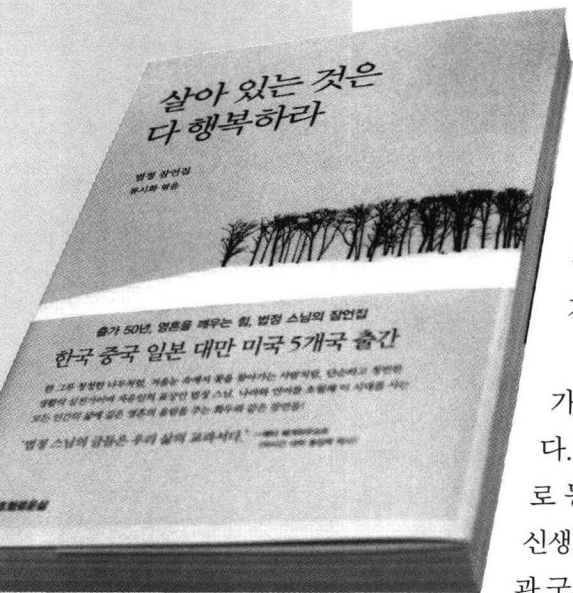
수필 장르의 독서 경험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법정(法頂)을 자신의 기억의 맨 앞 목록에 놓을 것이다. 물론 피천득, 안병욱, 김형석, 이어령, 유안진, 이해인 같은 스타급 산문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모음》에서 《無所有》로 이어지는 법정 수필이 많은 이들에게 불가피한 통과제의처럼 매혹적 기억을 주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법정 신간이 나올 적마다 독자들은 마치 목마른 이들과처럼 그의 샘물 같은 언어를 찾고 그 세계 안에 몰입했던 것이다.

그래서 법정의 책들은 당대에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스테디셀러로 위상을 바꾸는 불변의 공식을 밟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 법정의 잠언들을, 그에 못지 않은 스타급 시인 류시화가 엮어 출간하였다. 당연하게도 이 두 베스트셀러 작가시인의 결합은 독자들의 구매 욕구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 사람 이름만 걸려 있어도 고정 독자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터에, 류시화가 엮은 법정 잠언록(箴言錄)이라니, 요즘 같은 출판 불황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보기 드문 출판 브랜드가 출현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잠언(aphorism)'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교훈과 경계가 되는 짧은 양식으로서 대개는 평이한 언어와 시적인 직관에 의해 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은, 커다란 우주적 섭리나 진실에 순간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에 새로운 탄력을 부여하는 신생의 작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참'과 '신생'의 감각은, 일정한 지속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을 규율한다기보다는, 나날의 삶이 가질 법한 무의미함과 순환성에 일종의 인지적·정서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치유해갈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부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법정 잠언들은 이러한 인지적·정서적 충격 가운데 인생론적 긍정과 무소유의 행복,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깨달음을 암시하는 명상 언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화해적이며 우주 친화적인 표현들을 통해 법정은 복잡성보다는 단순성, 갈등보다는 화해, 부정적 의식보다는 긍정적 의식을 강조해마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제도적으로 갱신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적 의지나 시선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가령 법정은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오히려 넘침에 있다.”(“스스로 행복한 사람”)라든가 “뒷모습이다./이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그리고 이 뒷모습을 볼 줄 아는/눈을 길러야 한다./앞모습은 허상이고/뒷모습이야말로 실상이기 때문이다.”(“뒷모습”) 혹은 “산에 오르면/사람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무의미한 말의 장난에서 벗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법정 지음 | 류시화 엮음 | 조화로움출판 | 248쪽 | 값9,800원

●이 글을 쓴 유성호(柳成浩)는 연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박사).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문학평론가. 저서로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침묵의 파문》 등이 있음.

어나/입 다물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지금까지 밖으로만 향했던 눈과 귀와 생각을/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산에 오르면’) 같은 표현들을 통해 ‘모자란 행복’과 ‘후면의 아름다움’과 ‘사람들(말)로부터의 해방’을 설파한다. 이는 한결같이 불교적 변증법의 원리를 이루는 일종의 역리(逆理)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어찌보면 우리 모두가 내면속에서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공통 감각(common sense)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이 같은 언어에 사람들은 왜 그토록 오랜 신뢰와 애착을 보내는 것일까? 왜 그의 언어에 불교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불특정한 타자들을 향한 보편적 언어로서의 권위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커다란 까닭은 법정이가 전해주는 그 특유의 삶에 대한 따스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잠언에는 비록 지금은 누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권면과 위안의 미학이 지배적 주제로 드러난다. 이러한 주제는 독자들의 교양 육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종의 화해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독특한 의사 교육적(pseudo-educational)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명료하고 투명한 역리를 통해 독자들의 삶이 가지는 병리적 상황을 진단해주고 그것을 위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법정의 언어는, 자신도 이미 해답을 알고는 있지만 큰 타자에게 그것을 확인받고 동시에 위안받으려는 대중들의 보편적 욕망과 친밀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 까닭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기원했습니다.”(류시화, ‘인간,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고백에 드러나듯, 법정의 언어가 계층과 성별과 이념의 편차를 떠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법정의 언어는 세계내적 존재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계층적, 이념적 갈등들을 짐짓 모른 채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사회적 상황론을 자신의 언어 속에서 배제함으로써 읽는 이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제거한다. 만약 법정이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장애인, 혼혈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 내의 온갖 마이너리티들에 대해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거나 그들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심 주제로 삼았다 해도 이 같은 폭발적 대중성이 확보되었을까? 아닐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법정은 많은 독자들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참여적 종교 지성의 언어를 원했던 정예적 소수를 독자로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같은 갈등들의 매듭을 자신의 문장 안에서 풀거나 매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한

분기점에서 그는 부드럽게 멈춰서 있을 뿐이고, 오로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마지막 까닭은, 앞서서도 암시하였듯이 이 책에 한정해 볼 때, 《無所有》와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림자》가 결합되어 나타난 이미지의 친숙성(intimacy)에서 찾아진다. 안식과 위안과 깨달음으로서의 독서에 그들만의 보증 수표가 어디 있는가. 대중들은 낯설게 다가오는 새로운 담론(談論)보다는 익숙한 것의 재확인(再確認)을 선호하고 그러한 언어에 안도하기 때문이다.

법정의 잠언들은 모든 중생을 잠재적 청자로 삼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체적 마이너리티를 옹호하는 일련의 논리와는 다른 곳에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풀어놓는다. 이러한 원형적 보편성의 언어는, 역설적으로 사회 규범의 요구와 긍정적으로 화해하는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상투적인 베스트셀러 유해론(有害論)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스트셀러’라는 기호는, 대중의 욕망과 자본의 부가 가치 욕망이 결합되어 그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베스트셀러’가 한 사회의 중요한 지식 지수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대중적 욕망을 소비시키는 일종의 상품적 표지(標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법정의 언어에는 속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적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 의사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과 구체적 타자들을 뜻 생명의 범주 속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성의 언어로 나아가는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법정 대중성의 핵심일 것이다.

이 책은 올해로 출가 50년을 맞는 법정 스님을 기리는 의미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은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명상적 사진까지 본문과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매우 풍성하다. 무소유를 통한 자유, 단순함과 간소함의 가치, 홀로 있음과 침묵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길,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성찰로 채워진 법정 잠언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전해준다. 이러한 법정 언어의 미덕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으리라. 서양에서 달라이라마, 티벳 이후 불교의 새로운 스승으로 법정을 주목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이 책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도 출간을 준비중에 있고, 올해 안에 모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의 근원을 지향하는 사색과 탈근대적 역리의 어법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될 날을 기다려본다. ■